

상황, 의복 유형 및 배색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ontexts, Clothing Type, and Clothing Color
on Women's Impression Formation**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이 명 희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Myoung-Hee Lee

(2001. 10. 24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contexts, clothing type, and clothing color on women's impression formation. The experimental design was $2 \times 2 \times 6$ (context \times clothing type \times clothing color) factorial design with between-subjects design. Subjects were 367 college women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Five factors were derived to account for the dimensions of impression formation. These were activity, elegance, attraction, potency, and friendship.

Contexts g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perception of potency. Women on the park background were perceived higher in potency than on the school corridor. Clothing types g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5 impression dimensions. Suits were evaluated higher in elegance and attraction factors than shirts/pants, and shirts/pants were higher in activity, potency, and friendship than suits. Clothing colors g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elegance, attraction, and friendship factors. The navy blue upper and lower dresses were perceived lower in attraction and friendship factors, and the red/beige, beige/beige, and white/beige dresses were perceived higher in friendship.

Elegance factor had an interaction effect by the clothing types and contexts. Suits were rated more elegant on the school context than on the park, while shirts/pants more elegant on the park than on the school. Elegance and attraction had interaction effects by the clothing types and clothing color. The upper and lower dresses of beige/beige were evaluated less elegant in shirts/pants than in suits. The suits of red/beige were evaluated less attractive than the shirts/pants of the same color. The women wearing suits were shown older than those wearing shirt and pants, and those wearing navy blue upper and lower dresses were shown the old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at coloration of dresses and the social context such as a school and a park affects perception of stimulus persons wearing formal or casual apparel.

Key words: context, clothing type, clothing color, impression formation;
상황, 의복 유형, 의복 배색, 인상형성

* 이 논문은 2000년도 이세웅박사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I. 서론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잠시동안 어떤 사람을 본 후에 그 사람에 대한 여러 특징들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에 대한 지식과 기대는 그들의 인상에 의해 결정된다. 인상형성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좋다나쁘다'는 평가요인이 먼저 지각되고 능력, 활동, 태도 등이 평가된다(Sears, Freedman, & Peplau, 1985; Damhorst, 1990). 이때 의복은 착용자를 지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되며 의복유형이나 스타일, 의복의 색이 전달의 상징적 작용을 한다.

인상을 결정짓는 의복의 속성 중에서 색에 대한 반응은 매우 즉각적이므로 다양한 의복의 색에 대한 지각이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김광경, 1992; 이향미·김재숙, 1998; 이주현·조금호, 1995; 이명희·강승희, 1998). 또한 의복유형으로는 수트와 원피스, 캐주얼웨어, 전통의상 등이 연구되었으며, 의복유형에 따라 품위, 지적 능력, 전문적 이미지, 접근가능성 등이 다르게 평가됨이 확인되었다(Butler & Rossel, 1989; Chowdhary, 1988; Thurston, Lennon, & Clayton, 1990; 강혜원·이주현, 1990).

의복에 의해 전달되는 의미는 관찰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상황 또는 맥락에 의해 영향받는다. 즉 같은 의복이라도 착용자의 상황이나 배경에 따라 인상형성이 달라진다. Kaiser(1983~84)는 어떤 상황에서 의복에 의해 나타나는 사회적 특성은 그 상황에서 필요한 정장요구도, 참가자들 사이의 관계, 상황에 대한 친숙성이나 관심도 등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즉 정장 또는 캐주얼복을 입은 남녀를 지각하는 것은 그 인물이 처한 사무실이라는 맥락에 의해 영향받았으며(Damhorst, 1984~85), 넥타이를 맨 대학생에 대한 지각은 취업면접 상황과 대학 캠퍼스라는 두 개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화되었다(Rees, Williams, & Giles, 1974).

이와 같이 의복의 색, 스타일, 사회적 맥락에 따른 대상 인물의 인상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되어 왔다. 그러나 상황과 의복의 상호작용을 조사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상황별로 단편적인 옷차림의 효과를 흑백의 선 그림을 사용하여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며,

의복 배색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상황과 관련지어 조사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CAD 시스템의 발달로 같은 인물의 의복 색과 배경을 바꾸어 실험연구의 자극물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실제 상황에서의 접근이 더욱 용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장과 캐주얼웨어의 의복 색을 일상생활에서 착용 가능한 배색으로 변화시켜 여러 가지 배색에 의해 표현되는 옷차림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지각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시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는 의복유형의 단서와 함께 같은 의복의 색을 체계적으로 변화시켜 이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조사하면서, 사회적 상황이 어떻게 상호작용되어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의복 유형은 정장과 캐주얼로 나누었고, 상황은 대학 캠퍼스와 야외의 2가지 맥락으로 설정하였다. 의복 색은 두 가지 유형의 의복에 모두 착용가능한 색 중에서 채도와 명도를 고려하여 진남색, 빨강, 베이지, 흰색을 택하여 색을 조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황, 의복 유형 및 의복 배색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을 규명하며, 동시에 지각대상자의 의복에 따라 연령이 다르게 지각되는지를 알아보는 데에 있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의복 유형과 인상형성

사회적 지각 연구는 지각자 변인, 지각대상자 변인, 상황 변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Lennon & Davis, 1989),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지각대상자의 의복 유형 및 스타일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Gibbins와 Coney(1981)는 스커트 길이와 폭, 티셔츠 형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스커트 길이가 외향성 평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Sweet과 Zenther(1985), Paek(1986)은 4가지 의복 스타일의 그림 자극물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의복 스타일에 따라 사회성, 전통적, 지적, 타인 의존적, 성실성 등의 인상 차원이 달리 평가되었다.

Thurston, Lennon과 Clayton(1990)의 연구에서는 여

성의 전문적 이미지가 의복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원피스보다 수트가 전문적 이미지가 높았고 최신유행 장식이 일반유행 장식, 클래식 장식보다 전문적 이미지가 낮게 평가되었다. Chowdhary(1988)의 연구에서는 인도의 전통의상과 양복 착용에 따라 강사의 수업능력의 평가가 변화되었으며 의복에 의해 전달되는 의미는 관찰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상황 또는 맥락에 의해 영향받았다. Butler와 Rossel(1989)의 연구에서는 진(jean)을 착용한 여교사는 수트를 착용한 여교사보다 접근가능성과 선호도가 높았으나 지적 능력은 낮게 평가되었다. Behling(1995)은 정장 스타일, 고급 스타일, 최신유행 스타일, 비규범적 스타일, 낡은 스타일로 조작한 고등학생 등교복에 대해 연구한 결과 정장스타일 착용자가 다른 스타일보다 지능과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강혜원, 이주현(1990)은 의복 유형으로서 한복 및 양복 착용자의 인상 차원을 조사하였는데, 평가 요인에서는 양복 착용자가 한복 착용자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품위 요인에서는 한복 착용자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재숙(1991)은 노년 여성이 한복 착용자를 서양의복보다 더 호의적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다. 남미우, 강혜원(1994)의 연구에서는 의복 유형(정장, 캐주얼, 형태(유행형, 기본형), 색(유행색, 기본색)을 변화시킨 남자 의복착용자의 인상을 조사한 결과 의복 유형 및 형태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미숙(1995)은 아동의 협동 요인이 의복의 격식 차림 여부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고 하였으며, 전호경, 황선진(1998)은 임신부의 의복 스타일에 따라 호의도와 업무수행 능력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2. 의복 색과 인상형성

색은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의복 디자인 요소이며, 의복의 이미지 전달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색이 전달하는 이미지는 개인에 따라 다르더라도, 사람들은 색에 대한 공통된 느낌을 지닌다.

Winakor와 Navarro(1987)는 의복 색의 명도(어두운, 중간, 밝은)와 의복 유형(dress, suit, sports)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착용자에 대한 호감 평가에서 의

복의 명도는 비체계적인 영향을, 의복 유형은 더 체계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쳤다. Francis와 Evans(1987)는 짙은 색 의복이 관리직 직원 여성의 능력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선명한 색보다 낮은 채도의 의복이 긍정적인 인상을 준다고 하였다.

김광경(1992)의 연구에서는 분홍과 검색 수트의 색은 능력이나 활동성 요인의 지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평가 요인에만 영향을 미쳤으나, 블라우스와 스커트 차림에서는 검색 스커트가 분홍색 스커트보다 더 능력있게 지각되었다. 이주현, 조궁호(1995)의 연구에서는 파란색 수트의 착용자는 가장 능력 있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빨간 수트 착용자는 눈에 띄고 화려한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1995)은 컴퓨터에 인물의 모습을 입력하고 의복 색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자극물을 제작한 다음 인상을 평가하게 한 결과, 평가와 조화의 측면에서는 무채색이 더 긍정적이었고 활동 차원에서는 유채색이 더 긍정적이었다. 이명희, 강승희(1998)의 연구에서는 빨간 재킷이 무채색보다 더 젊어 보이고 더 능력있게 지각되었다. 이혜숙, 김재숙(1998)의 한복에 대한 연구에서는 남색이 평가성 차원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되었으며, 매력성 차원에서는 빨간이 가장 멋있고 매력적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3. 상황과 인상형성

상황적 변인이란 지각이 일어나는 사회적 상황, 또는 맥락(context)을 의미하며(Lennon & Davis, 1989), 의복은 착용자가 어떤 사회적 상황 또는 맥락(context)에서 그 의복을 입었는가와 관련되어 의미가 달리 전달된다.

의복의 인상형성 연구에서 상황변인을 포함시킨 연구는 상황의 변화와 상황적절성에 관한 내용이 있다(강혜원, 1995). 즉 인상형성시 의복의 지각이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가를 밝히는 내용과 의복 및 상황의 적절성 여부가 지각대상자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것이다. workman(1984~85), Ray(1985~86), Johnson과 Roach-Higgins(1987) 등은 취업면접 상황에서 의복 적절성이 면접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그 직업에 적절한 의복을 입은 경우 더 고

용에 긍정적이며 능력이 높게 평가되었다. O'Neal과 Lapitsky(1991)는 상품광고 전달메시지에 나타난 의복과 광고상황의 적절성이 광고의 신뢰성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광고되는 상품의 사용에 적합한 의복을 적절한 상황에서 착용했을 때 광고에 대한 신뢰도와 구매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Rees, Williams와 Giles(1974)는 넥타이를 맨 대학생들을 사회적 배경과 관련지어 연구하였는데, 캠퍼스의 대학생들은 넥타이를 매지 않을 때 더 지적으로 평가되었지만 면접시험 때의 대학생들은 넥타이를 맨 모습이 더 지적으로 간주되었다. Damhorst(1984-85)는 사무실 상황에서 두 남녀가 같은 유형의 복장을 하였을 때보다 정장과 캐주얼 복장이 남녀 사이에 대조되었을 때 더 많은 추론을 이끌어냈다고 하였다.

강혜원, 이주현(1990)은 3가지 상황에서 한복 및 양복착용자의 지각을 비교하였는데 여자 착용자는 학교를 배경으로 할 때 더 능력 있게, 직장상황에서는 더 품위 있게 지각되었으며, 한복착용자가 특히 학교를 배경으로 했을 때는 운동권이나 의식 있는 행동과 등으로 지각되었다. 남미우, 강혜원(1994)의 연구에서는 남자 의복착용자의 면접상황의 캐주얼 차림은 평가 요인에서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으며 주말 외출시 정장은 활동성 요인에서 비활동적으로 지각되었다. 이항미, 김재숙(1998)은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남자교사에 대한 인상형성 연구를 하였는데 교실 맥락은 야외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준격식차림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명희(1999)는 노년 여성의 한복과 양장차림을 결혼식과 동창회 상황에서 비교하였는데 같은 반회장 분홍 저고리와 자주색 치마를 입은 모습이라도 결혼식 상황보다 동창회에서 더 활동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주소현, 이경희(1999a)의 연구에서는 인공물과 자연물의 배경을 비교한 결과 의복착용자의 배경에 따라 경연성, 현시성, 귀여움, 온도감의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되었으며, 캐주얼한 의복은 자연물의 배경이 잘 어울렸고 모던한 이미지의 의복은 인공 건축물의 배경이 더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속 연구(1999b)에서 모던한 의복은 깔끔한 인공물의 배경에서 차가운 이미지를, 정적인 실내 배경에서는 성숙한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캐주얼한 의복은 전원적인 자연물의 배경에서 부드러운 이미지, 깔끔한 인공물의 배경에서는 딱딱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에서 취업면접, 학교, 직장, 주말외출, 결혼식, 자연물 등의 상황이나 배경이 의복과 상호작용하여 지각대상자의 인상형성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다.

III.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준실험방법으로서 피험자간(between-subjects) 설계이며, 실험설계는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2 \times 2 \times 6$ (상황 \times 의복 유형 \times 의복 배색)의 요인설계를 사용하였다.

1. 측정도구

1) 자극물

본 연구에 사용된 지각대상자로서의 자극물은 수트와 캐주얼웨어를 착용한 20대 여성의 모습으로 의복단서 변인을 의복 유형 및 배색에 따라 변화시킨 것이다. 모델은 타원형의 표준형 얼굴로서 표준체형에 가까운 20대 여대생 1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모델의 키는 163cm, 몸무게는 52kg이었다.

수트는 테일러드 칼라의 재킷과 무릎 길이의 스트레이트 스커트를 착용하게 하였다. 이 의복은 모리스 커빙홈의 2000년도 봄 시즌에 생산된 기성복을 험찬받아 사용하였다. 재킷 안에는 흰색 라운드 네크라인의 블라우스를 착용하였으며, 신발은 검정색 구두를 착용하였다. 캐주얼웨어는 라운드 네크라인의 스웨트셔츠(sweat shirt) 및 면바지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였다.

자극물의 제작방법은 모델이 흰색 테일러드 칼라의 수트와 흰색 셔츠 및 고명도의 베이지색 면바지를 착용한 두 가지 경우를 촬영하여 사진을 제작하였다. 모델의 자세는 정면으로 서 있는 모습으로 자세와 헤어스타일은 일정하게 통제하였으며, 헤어스타일은 자연스러운 긴 머리 형태였다. 사진은 전신 모습으로 12×18 cm의 크기였다. 이 사진을 칼라 스캐너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photosho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복 색을 변화시켰다. 의복 색이 결정된 모델의 모

습은 연구변인의 상황에 맞추어 학교 건물 내의 복도와 야외의 공원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사용하여 2가지 배경 위에서 있는 모습이 되도록 조정하였다. 이를 칼라 프린터를 사용하여 15×23cm의 크기로 출력하여 자극물로 사용하였다.

자극물은 상황(2), 의복 유형(2), 의복 배색(6)으로 변화를 주어 총 24 종류의 칼라 출력물로 구성되었다. 각 자극물은 의복 변화에 따라 수트는 A1~A6, 캐주얼웨어는 B1~B6으로 기호를 붙였다. A1은 진남색 상하의 수트, A2는 베이지색 재킷과 진남색 스커트, A3은 진남색 재킷과 베이지색 스커트, A4는 빨강 재킷과 베이지색 스커트, A5는 베이지색 상하의 수트, A6은 흰색 재킷과 베이지색 스커트를 착용한 모습이다. B1~B6의 바지와 셔츠는 수트와 동일한 색의 6가지 배색을 사용하였다.

이상에서 사용된 의복 색은 Munsell의 색 체계에서 2PB 3/6(진한 남색), 4YR 8.5/2(베이지색), 2R 4/12(빨강)에 해당되었다(COS, 1997). [그림 1], [그림 2]는 자극

물 A6의 학교 배경의 수트와 B6의 공원 배경의 캐주얼웨어이다.

2) 의미분석도의 형용사 쌍 선정

의미분석도는 자유기술식 응답법과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들을 참고로 하여 수집하였다. 자유기술식 응답은 여대생 60명에게 자극물을 제시하여 사전 조사를 하였다. 1명의 피험자가 상황과 의복이 다르게 조합된 2개의 자극물에 반응하도록 하였는데, 자극물을 보고 연상되는 모든 형용사를 제한 없이 자유응답식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선행연구(Darmhost, 1990; 강혜원, 이주현, 1990; 강혜원, 고애란, 1991; 이명희, 강승희, 1998; 주소현, 이경희, 1999a)에서 적절한 형용사 용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용어는 중복되는 것과 조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제외시켜, 총 32개의 형용사 쌍을 선정하였으며, 7점 양극 형용사 쌍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의복착용자인 자극물과 함께 인상차원을 측정하는 의미분석도



[그림 1] 자극물 A6



[그림 2] 자극물 B6

문항과 자극물의 연령을 평가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피험자는 서울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여대생 367명이었으며, 한 개의 자극물에 14~16명의 피험자가 반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5~6월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은 요인분석, 삼원변량분석,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상황, 의복유형 및 배색에 따른 인상형성의 요인분석

인상을 평가하는 의미미분척도 형용사의 32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최소 고유치 1 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5개 요인을 택하였다. 1차 요인분석에서 문항의 내용이 요인에 적합하지 않은 2개 문항을 제외하고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요인 1은 편안한-불편한, 활동적-비활동적, 능동적-수동적, 사교적-비사교적 등이 포함되어 활동성 요인이라 칭하였고, 요인 2는 단정한-단정하지 않은, 차분한-요란한, 품위 있는-품위 없는 등이 포함되어 품위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매력적인-매력적이지 아닌, 세련된-촌스러운, 보기 좋은-보기 싫은 등이 포함되어 매력성 요인이라고 하였고, 요인 4는 강한-약한, 자신감 있는-자신감 없는 등이 포함되어 능력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요인 5는 따뜻한-차가운, 부드러운-딱딱한, 상냥한-무뚝뚝한 등이 포함되어 화친 요인이라고 하였다.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50 이상이고 요인 5까지의 누적변량은 62.29%였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 신뢰도계수는 요인 1에서 요인 5까지 각각 .90, .89, .81, .63, .70으로서 신뢰도가 만족할만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동성과 매력성 요인의 도출은 문삼

<표 1> 인상형성의 요인분석

| 요인 1. 활동성 | 요인부하량 |
|------------------|--------------------|
| 편안한-불편한 | .75 |
| 활동적-비활동적 | .74 |
| 어려보이는-성숙한 | .73 |
| 능동적-수동적 | .70 |
| 자연스러운-어색한 | .67 |
| 적극적-소극적 | .66 |
| 사교적-비사교적 | .64 |
| 발랄한-점잖은 | .64 |
| 귀여운-노숙한 | .60 |
| 변량 = 27.76% | 누적변량 = 27.76% |
| 고유치 = 8.33 | α 신뢰도 = .90 |
| 요인 2. 품위 | 요인부하량 |
| 단정한-단정하지 않은 | .82 |
| 차분한-요란한 | .76 |
| 깔끔한-깔끔하지 않은 | .72 |
| 얌전한-얌전하지 못한 | .66 |
| 고상한-천박한 | .65 |
| 지성적인-비지성적인 | .62 |
| 정숙한-정숙하지 못한 | .58 |
| 품위있는-품위없는 | .56 |
| 능력있는-능력없는 | .50 |
| 변량 = 18.74% | 누적변량 = 46.50% |
| 고유치 = 5.62 | α 신뢰도 = .89 |
| 요인 3. 매력성 | 요인부하량 |
| 매력적인-매력적이지 아닌 | .76 |
| 세련된-촌스러운 | .75 |
| 호감이 가는-호감이 가지 않는 | .69 |
| 보기 좋은-보기 싫은 | .62 |
| 돌보이는-돌보이지 않는 | .59 |
| 변량 = 7.53% | 누적변량 = 54.03% |
| 고유치 = 2.26 | α 신뢰도 = .81 |
| 요인 4. 능력 | 요인부하량 |
| 강한-약한 | .75 |
| 자신감 있는-자신감 없는 | .67 |
| 대담한-소심한 | .60 |
| 변량 = 4.48% | 누적변량 = 58.51% |
| 고유치 = 1.34 | α 신뢰도 = .63 |
| 요인 5. 화친 | 요인부하량 |
| 따뜻한-차가운 | .73 |
| 부드러운-딱딱한 | .73 |
| 상냥한-무뚝뚝한 | .60 |
| 밝은-어두운 | .50 |
| 변량 = 3.78% | 누적변량 = 62.29% |
| 고유치 = 1.14 | α 신뢰도 = .70 |

런, 이경희(1994)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품위, 능력, 화친 요인의 도출은 강혜원, 이주현(1990), 이주현, 조금호(1995), 이명희, 강승희(1998) 등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상에서 결정된 5개 요인은 문항점수를 합하여 문항수로 나눈 후 계속되는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앞쪽에 위치한 형용사의 특성과 그 요인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 상황, 의복유형 및 배색에 따른 인상형성의 차이

상황, 의복유형 및 배색에 따른 인상형성의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보조적 분석으로 MCA(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주효과를 볼 때 활동성, 품위, 매력성, 화친 요인은 상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능력 요인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MCA의 평균에서 상황에 따른

능력의 차이를 보면 공원보다는 학교 상황의 경우 더 능력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것은 공원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학교는 학생이라는 특정 집단과 관련지어 이해되는 상황이므로 지각자는 학교에서 만나는 대상자를 공원의 경우보다 더 능력 있는 인물로 평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복 유형에 따라 5개 요인이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수트는 셔츠/바지보다 더 품위와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활동성, 능력, 화친 요인은 낮게 지각되었다. 즉 지각자가 셔츠/바지를 착용한 인물을 보았을 때는 수트 착용자보다 더 부드럽고, 상냥한 느낌을 받았으며, 정장수트 차림은 품위와 매력성의 측면에서는 좋은 효과를 지니지만 의복때문에 상대방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Butler와 Rossel(1989)의 연구에서 진을 착용한 여교사가 수트 착용자보다 접근가능성이 높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캐주얼웨어보다 수트차림을 더 능력있게 지각

<표 2> 상황, 의복 유형 및 배색에 따른 인상형성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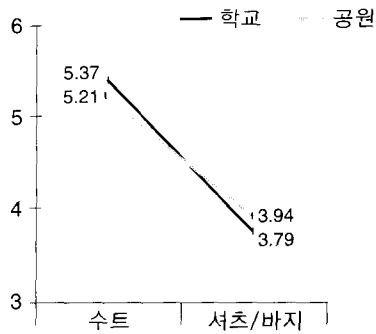
(N=367)

| 분석방법 | 변량원 | | df | 활동성 F | | 품위 F | | 매력성 F | | 능력 F | | 화친 F | |
|------------|----------------|----------|------|----------|------|----------|------|--------|------|---------|------|---------|-----|
| | | | | M | eta | M | eta | M | eta | M | eta | M | eta |
| 3원 변량분석 | 주효과 | 상황(A) | 1 | .27 | | .01 | | 2.10 | | 5.63* | | .00 | |
| | | 의복 유형(B) | 1 | 372.13** | | 318.96** | | 8.56** | | 11.41** | | 23.82** | |
| | | 의복 배색(C) | 5 | 1.08 | | 3.15** | | 5.34** | | 1.26 | | 9.01** | |
| | 2원 상호 작용 효과 | A×B | 1 | 2.17 | | 4.04* | | .34 | | .03 | | .00 | |
| | | A×C | 5 | .86 | | 1.63 | | 1.30 | | 1.17 | | .69 | |
| | | B×C | 5 | .69 | | 3.98** | | 3.57** | | 1.44 | | 1.14 | |
| | 3원 상호 작용 효과 | A×B×C | 5 | .81 | | .99 | | 1.05 | | .90 | | 1.84 | |
| 잔차 | | | 343 | | | | | | | | | | |
| MCA | 번인 | 속성 | N | M | eta | M | eta | M | eta | M | eta | M | eta |
| | 상황 | 학교 | 183 | 3.85 | .02 | 4.58 | .00 | 3.03 | .07 | 3.56 | .12 | 3.87 | .00 |
| | | 공원 | 184 | 3.80 | | 4.58 | | 2.89 | | 3.31 | | 3.87 | |
| | 의복 유형 | 수트 | 185 | 2.94 | .71 | 5.29 | .67 | 3.10 | .14 | 3.26 | .17 | 3.63 | .24 |
| | | 셔츠/바지 | 182 | 4.72 | | 3.86 | | 2.81 | | 3.61 | | 4.12 | |
| | 의복 배색 | 진남색·진남색 | 63 | 3.72 | | 4.43 | | 2.65 | | 3.59 | | 3.34 | |
| | | 베이지·진남색 | 60 | 3.79 | | 4.43 | | 2.69 | | 3.39 | | 3.81 | |
| | | 진남색·베이지 | 61 | 3.75 | .09 | 4.63 | .14 | 2.79 | .26 | 3.32 | .13 | 3.56 | .32 |
| | | 빨강·베이지 | 61 | 3.78 | | 4.50 | | 3.15 | | 3.61 | | 4.24 | |
| | | 베이지·베이지 | 63 | 4.04 | | 4.65 | | 3.22 | | 3.42 | | 4.21 | |
| 흰색·베이지 | | 59 | 3.89 | | 4.87 | | 3.26 | | 3.25 | | 4.07 | | |

*p<.05 **p<.01

한 것은 상황을 공원과 학교 상황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여대생들이 그와 같은 환경에서는 캐주얼웨어를 착용하는 것을 적절하게 인식하여 부적절한 옷차림을 한 수트차림을 상대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는 Butler와 Rossel(1989)의 연구에서 여교사의 수트가 더 지적 능력이 높게 평가되었던 것과는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옷차림으로 인한 능력의 지각이 착용자의 신분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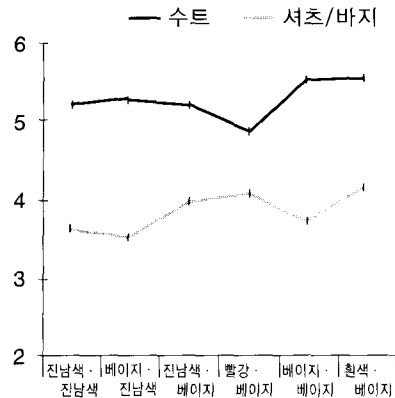
의복 배색에 따라 품위, 매력성, 화친 요인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활동성과 능력 요인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즉 진남색 상하의, 베이지색 및 진남색의 배색은 매력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빨강색과 베이지색 배색, 베이지색 상하의, 흰색 및 베이지색 배색은 화친 요인이 높았고, 진남색 상하의는 매력성과 화친 요인이 낮게 지각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의복을 착용할 때 고명도의 색은 긍정적인 인상을 주며 어두운 진남색은 매력성이 없으며 차갑고 딱딱한 느낌을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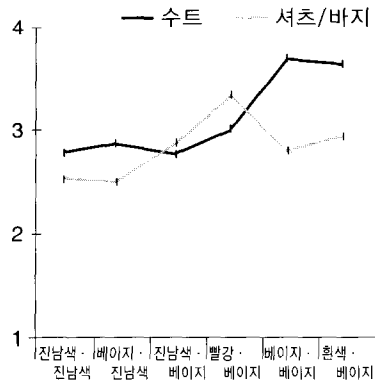
[그림 3] 품위 요인에 대한 상황과 의복 유형의 상호작용형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 인상형성의 모든 요인은 3개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는 없었으나 품위 요인은 의복 유형 및 상황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품위 요인



[그림 4] 품위 요인에 대한 의복 유형과 배색의 상호작용형태



[그림 5] 매력성 요인에 대한 의복 유형과 배색의 상호작용형태

<표 3> 품위와 매력성 요인에 대한 의복 유형과 배색에 따른 평균의 차이

| 요인, 유형 | 배색 | 진남색·진남색 | 베이지·진남색 | 남색·베이지 | 빨강·베이지 | 베이지·베이지 | 흰색·베이지 |
|--------|-------|---------|---------|---------|---------|---------|---------|
| | | 진남색·베이지 | 베이지·진남색 | 베이지·베이지 | 베이지·베이지 | 베이지·베이지 | 베이지·베이지 |
| 품위 | 수트 | 5.22 | 5.31 | 5.23 | 4.88 | 5.55 | 5.58 |
| | 셔츠/바지 | 3.62 | 3.55 | 4.00 | 4.10 | 3.72 | 4.19 |
| 매력성 | 수트 | 2.77 | 2.86 | 2.75 | 2.99 | 3.66 | 3.61 |
| | 셔츠/바지 | 2.53 | 2.51 | 2.83 | 3.32 | 2.77 | 2.93 |

에 대한 의복 유형과 상황의 상호작용형태는 [그림 3]과 같다. 수트는 셔츠/바지보다 품위가 높게 지각되었으나 학교 상황에서는 더 품위있게 평가되었고 셔츠/바지는 공원 상황이 학교보다 더 품위있게 평가되었다. 이것은 공원에서 수트차림의 인물을 보았을 때 상황에 맞지 않는 옷으로 지각되어 적절한 상황의 경우보다 부정적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주소현, 이경희, 1999a)에서 캐주얼한 의복은 자연물의 배경이 잘 어울렸다고 한 내용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품위와 매력성 요인은 의복유형 및 배색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표 3>, [그림 4], [그림 5]와 같다.

수트는 빨강·베이지가 품위가 낮았으나, 셔츠/바지는 베이지·진남색, 진남색 상하의, 베이지색 상하의가 품위가 낮았다. 매력성 요인의 상호작용형태를 보면 빨강과 베이지색의 배색은 셔츠/바지 차림이 수트보다 더 매력있게 평가되었고, 베이지색 상하의와 흰색과 베이지색 배색은 셔츠/바지 차림보다 수트가 매력성이 더 높게 지각되었다. 수트는 베이지색 상하의가 가장 매력성이 높았고, 셔츠/바지는 빨강·베이지색이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 또한 셔츠/바지는 진남색 상하의, 베이지색 상하의, 베이지와 진남색 배색을 매력성이 낮게 평가하였다. 즉 지각자는 수트는 고명도의 동색을 좋게 평가하였으며, 캐주얼웨어의 경우는 빨강과 같은 화려한 이미지의 배색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 베이지색과 진남색 상하의는 품위와 매력성 요인에서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캐주얼웨어는 상하 의복이 같은 색일 때 품위나 매력성의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지각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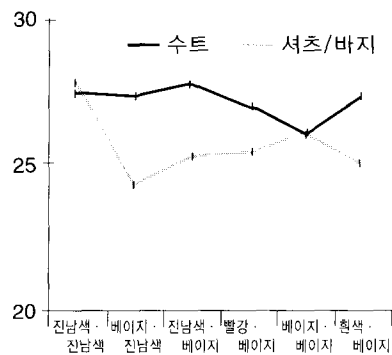
알 수 있다.

3. 자극물의 연령 평가

자극물에 대한 지각 연령이 의복 유형 및 배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 [그림 6]과 같다.

자극물의 연령 평가는 의복 유형과 의복 배색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두 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도 있었다. 의복유형의 전체 평균을 보면 수트 착용자의 평균 연령은 27.14세, 셔츠/바지의 착용자의 연령은 25.60세로 수트가 연령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의복 배색의 경우는 진남색 상하의 착용자가 27.62세로 가장 연령이 높게 지각되었고, 베이지·진남색 착용자가 25.77세로 가장 연령이 낮게 지각되었다. 상호작용형태를 보면 진남색 상하의와 베이지색 상하의는 의복 유형에 따른 연령 지각의 차이가 없었으나, 수



[그림 6] 지각 연령에 대한 의복 유형과 배색의 상호작용형태

<표 4> 의복 유형 및 배색에 따른 지각 연령의 차이

| 의복 유형 | 집단별 평균치 | | | | | | | 이원변량분석 결과 | |
|---------|---------|---------|--------|---------|--------|-------|-------|-----------|---------|
| | 의복 배색 | | | | | | | 변량원 | F |
| 진남색·진남색 | 베이지·진남색 | 진남색·베이지 | 빨강·베이지 | 베이지·베이지 | 흰색·베이지 | 전체 | | | |
| 수트 | 27.50 | 27.30 | 27.77 | 27.00 | 25.97 | 27.31 | 27.14 | 의복유형(A) | 18.67** |
| 셔츠/바지 | 27.74 | 24.23 | 25.23 | 25.33 | 26.10 | 24.90 | 25.60 | 의복배색(B) | 2.35* |
| 전체 | 27.62 | 25.77 | 26.52 | 26.18 | 26.03 | 26.08 | 26.38 | A×B | 2.72* |

* p<.05 ** p<.01

트는 상하동색의 베이지색 착용자가 가장 연령이 낮게 지각되었다. 셔츠와 바지 착용자 중에서는 진남색 상하의가 가장 연령이 높았고 베이지·진남색, 흰색·베이지색 착용자는 연령이 낮게 지각되었다. 이것은 캐주얼웨어를 착용할 때 상하동색의 저명도의 의복을 착용하면 연령이 많아 보이고, 상의를 하의보다 밝게 입으면 연령이 낮게 지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보다 더 젊어 보이는 연출을 위해서는 캐주얼웨어 착용시 상하 다른 색 의복을 입으면서 밝은 상의를 입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상황, 의복 유형, 의복 배색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상호 관련되어 나타나는 영향을 규명하며, 의복 유형 및 배색에 따라 여성의 연령이 다르게 지각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었다.

수트와 셔츠/바지를 착용한 여성의 인상 차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가의 내용을 요인분석한 결과, 5개 요인이 도출되어 활동성, 품위, 매력성, 능력, 화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상황, 의복 유형, 의복 배색에 따른 인상형성 차원에 대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효과에서 상황은 능력 요인에만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공원에 있을 때는 학교 상황보다 더 능력이 높게 지각되었다. 의복 유형은 5가지 인상 차원에 모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수트 차림은 셔츠/바지보다 품위와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셔츠/바지 차림은 수트보다 활동성, 능력, 화친 요인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의복 배색은 품위, 매력성, 화친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흰색 상의 및 베이지색 하의, 베이지색 상하의는 품위와 매력성이 높았으며, 화친 요인은 빨강 상의 및 베이지색 하의, 베이지색 상하의가 비교적 높았고 진남색 상하의는 품위, 매력성, 화친 요인이 모두 가장 낮았다. 따라서 상하동색의 진남색 옷은 차갑고 딱딱하며, 접근하기 어려운 인상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품위 요인은 의복 유형 및 상황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즉 수트는 공원보다 학교에서 더 품위가 높게 지각되었으나, 셔츠/바지는 학교보다 공원에서

더 품위가 높게 지각되었다. 품위와 매력성은 의복 배색 및 의복 유형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베이지색 상하의는 수트가 셔츠/바지 차림보다 품위와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빨강과 베이지색 배색은 셔츠/바지 차림이 수트보다 더 매력있게 지각되었다.

지각대상자에 대한 연령지각은 의복 유형과 배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두 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수트는 셔츠/바지보다 연령이 높게 지각되었고 진남색 상하의가 가장 연령이 높게 지각되었다. 진남색 상하의와 베이지색 상하의는 의복 유형에 따른 연령 지각의 차이가 없었으나, 수트 중에서는 베이지색 상하의가 가장 연령이 낮았다. 셔츠/바지는 특히 진남색 상하의가 가장 연령이 높았고, 베이지색과 진남색, 흰색과 베이지색의 배색이 연령이 낮게 지각되었다. 즉 어두운 색의 상하동색 캐주얼웨어는 연령이 많아 보이고, 밝은 색의 배색은 연령이 낮아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 상황에서 수트와 같은 포말웨어의 착용자는 공원에서보다 품위있게 보였고, 고명도의 밝은 색 의복이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특히 수트는 고명도의 상하동색이 가장 좋은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캐주얼웨어의 경우는 빨강과 같은 화려한 이미지의 배색이 더 매력있게 평가되었고 상하동색의 캐주얼웨어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따라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대상 인물의 지각은 의복 유형, 의복 배색, 학교 및 공원과 같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극물은 실물 착용자의 옷차림과 차이가 있을 것이며, 한 명의 모델만을 사용하여 평가한 점에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2명 이상의 모델을 사용하여 모델의 얼굴이나 체형이 미치는 영향을 의복 및 상황의 영향과 함께 고려하며, 사회적 맥락을 좀 더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다양하게 변화시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강혜원(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 강혜원 · 고애란(1991). 여자한복의 인상형성 연구: 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2), 211-227.
- 강혜원 · 이주현(1990).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의복의 의미(I): 한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4**(1), 31-43.
- 김광경(1992). 남성적 · 여성적 의복이 직장여성의 직업특성과 직업적합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재숙(1991). 의복범주, 유행성 및 착용자의 연령의 인상효과에 대한 연구: 여성 노인의 의생활양식과 관련지어.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남미우 · 강혜원(1994).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의 연령이 남자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8**(3), 311-326.
- 문삼련 · 이경희(1994). 의복형태와 물방울무늬의 공간변화에 따른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18**(1), 3-14.
- 이명희(1999). 노년여성의 한복 및 양장 착용과 관찰자의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 **41**, 187-202.
- 이명희 · 강승희(1998). 장신구와 재킷 색이 여성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8), 1111-1121.
- 이미숙(1995). 의복의 격식차림, 음양수준 및 아동체형이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이정옥 · 권미정 · 박영실(1995). 한국도시여성의 얼굴색과 의복색과의 배색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2), 167-180.
- 이주현 · 조금호(1995). 의상디자인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1보): 의복 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5), 747-764.
- 이향미 · 김재숙(1998). 남자 고등학교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 격식차림, 색 및 맥락의 영향: 대전지역 남 · 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3), 312-320.
- 이혜숙 · 김재숙(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1보): 여자 저고리, 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실험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5), 597-606.
- 전호경 · 황선진(1998). 직장상황 임산부의 의복스타일과 직업유형이 호의도와 업무수행능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6), 706-715.
- 주소현 · 이경희(1999a). 의복, 배경의 조합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3**(1), 78-89.
- 주소현 · 이경희(1999b). 의복, 배경의 조합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연구(제2보). *한국의류학회지*, **23**(2), 196-207.
- COS: Color System(1997). 한국유행색산업회.
- Behling, D. (1995). Influence of dress on perception of Intelligence and scholastic achievement in urban schools with minority population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3**(1), 11-16.
- Butler, S., & Rossel, K. (1989). Research note: The influence of dress on student' perceptions of teacher characteristic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7**(3), 57-59.
- Chowdhary, U. (1988). Instructor' s attire as a biasing factor in student' s ratings of an instructor.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6**(2), 17-22.
- Damhorst, M. L. (1984-1985). Meanings of clothing cues in social context.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5**(4), 237-246.
- Damhorst, M. L. (1990). In a search of a common thread: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ed through dres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1-12.
- Francis, S. K., & Evans, P. K. (1987). Effects of hue, value, and style of garment and personal coloring of model on person perception. *Perceptual & Motor Skills*, **64**(2), 383-390.
- Gibbins, K. & Coney, J. (1981). Meaning of physical dimensions of women' s clothe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53**(3), 720-722.
- Johnson, K., & Roach-Higgins, M. E. (1987). Dress and physical attractiveness of women in job interview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5**(3), 1-8.
- Kaiser, S. B. (1983-84). Toward a contextual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 Synthesis of symbolic interactionist and cognitive theoretical perspectiv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2**, 1-9.
- Lennon, S. J. & Davis, L. L. (1989). Clothing and human behavior from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Part I:

- Theoretical perspective.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7(4), 41–48.
- O'Neal, G. S., & Lapitsky, L. (1991). Effects of clothing as nonverbal communication on credibility of the message source.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4(2), 48–55.
- Paek, S. L. (1986). Effect of garment style on the perception personal trait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5(1), 10–16.
- Ray, G. H. (1985–86). Perception of physically impaired job applicants: Effect of dress, credentials and rater's sex.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4(2), 16–19.
- Rees, D. W., Williams, L., & Giles, H. (1974). Dress style and symbolic mea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Symbolology*, 5, 1–7.
- Sears, D. O., Freedman, J. L., & Peplau, L. A. (1985). Soci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p.50.
- Sweat, S. J., & Zentner, M. A. (1985). Attribution toward female appearance styles. In Solomon, M. R. ed.,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MA: Heath/Lexington Books, 321–336.
- Thurston, J. L., Lennon, S. J., & Clayton, R. V. (1990). Influence of age, body type, fashion, and garment type on women's professional imag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9(2), 139–150.
- Winakor, G., & Navarro, R. (1987). Effect of achromatic value of stimulus on responses to women's clothing styl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5(2), 40–48.
- Workman, J. E. (1984–85). Effect of appropriate and inappropriate attire on attribution of personal disposition.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3(1), 20–23.